

# 미국에 '작은 라싸' 태동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작은 라싸'가 태동하고 있다. <cille> 지가 3월 15일자(현지시간) 기사에서 "중앙 버지니아에 티베트 불교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중앙 버지니아에서 벽안의 불자들이 속속 티베트 불교에 귀하고 있고, 그들의 신행 역시 중앙 불자들을 따라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cille> 지는 "티베트 불교는 이제 티베트만의 종교가 아니다"는 매튜 코버(Matthew Conover · 26) 씨의 말을 인용, "중앙 버지니아에서 티베트 불교는 종교를 넘어 '힐링'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한 매튜 코버는 중앙 버지니아에서 살았던 청소년기에 티베트 불교를 처음 접한 이후로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 뮤지션으로 뉴욕에서 활동할 때도 매튜 코버는 티베트 불교센터를 찾으며 신행을 계속했고, 현재 뉴욕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샤토틀빌(Charlottesville) 사원을 다니며 다양한 수행과 신행을 병행하고 있다.

매튜 코버는 "티베트 불교는 삶의 나침반이자, 심지어 중독성까지도 느끼는 종교입니다"라며 "가톨릭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 내 자신을 찾은 곳은 티베트 불교사원"이라고 말했다.

나타샤 마이클(Natasha Mickle · 38) 역

시 중부 버지니아에서 티베트 불교에 귀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UVA 대학원에서 'Sino-Tibetan Buddhism'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나타샤이지만 그 당시까지도 불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나타샤가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 계기는 중부 버지니아 제퍼슨 티베트 불교공동체(Jefferson Tibetan Society)를 이끌고 있던 텐진 게펠(Tenzin Gephel · 50)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나서다.

"학위를 받을 당시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고 말한 나타샤는 "제퍼슨 티베트 불교공동체에서 주관했던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며 "당시 티베트 불교센터에서의 명상은 지금까지도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 당시 명상을 지도하셨던 텐진 게펠 스님과도 지금까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cille> 지는 "나타샤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매주 교회를 찾았을 정도로 독실했다"며 "그녀의 개종에 단초가 되었던 텐진 게펠 스님이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를 태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인도 남갈(Namgyal) 사원에서 14대 달라이 라마의 지도를 받으며 원력을 키운 텐진 게펠 스님은 <cille> 지와의 인터뷰에서 "티베트는 언제나 가고 싶은 내 조국"이라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티베트 불교사원인 샤토틀빌사원에서 신도들이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왼쪽).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를 태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텐진 게펠 스님.



## <cille> 지 "티베트 불교 종교를 넘어 힐링으로까지..."

### 텐진 게펠 · 나왕 토크미 스님의 활동 주목

며 "지금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이지만, 내가 있는 이곳을 티베트로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티베트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해외 각지에서 망명자로 살아가는 티베트인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한 부류는 망명 중에도 티베트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한 부류는 그 곳의 문화에 동화된 채 살아가고 있다.

"저는 티베트의 우수한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텐진 게펠 스님은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cille> 지의 질문에 "불교를 비롯해 그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하는 과정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곳의 미국인들이 찾자 하는 그 무엇과 교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 모두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스님은 "자신의 상실감에 솔직해지고, 티베트 사원을 찾은 미국인들과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만 있다면 특별한 포교 전략을 세우

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다"고 덧붙였다.

매튜 코버는 "샤토틀빌(Charlottesville) 사원은 '모두를 초대하고, 그들을 위로한다'를 모토로 삼고 있다"며 "동시대 미국인이 찾는 종교는 신앙을 이끌고 단급질하기 보다는 나란히 걸으며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종교"라며 "티베트 불교는 그 역할을 충실한 종교"라고 말했다. 한편 <cille> 지는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가 태동할 수 있었던 이유로 UVA 대학원이 소장하고 있는 티베트 장경을 비롯 티베트 불서를 꼽았다.

<cille> 지에 따르면, UVA 대학원이 티베트 장경을 비롯해 티베트 불서를 소장할 수 있는 것은 나왕 토크미(Nawang

Thokmey) 스님의 20여 년간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나왕 토크미 스님은 1993년부터 중부 버지니아에 적을 둔 이라 티베트 전문 도서관 설립을 위해 노력했고, UVA 대학원 측에 티베트 라이브러리를 제안, 지금의 티베트 불서를 보유할 수 있었다.

<cille> 지는 "UVA 대학원의 티베트 라이브러리에는 4만여 권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미국 내 대학 중에서 순위가 다를 정도"라며 "이들 도서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대출되고 있으며, 이는 중부 버지니아 시민들이 티베트 불교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는 삶을 일깨우는 종교"라고 말한 나왕 토크미 스님은 "중부 버지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 과정을 선형적으로 보이고, 함께 아프고 함께 즐거운 교감을 나누고 있다"며 "이는 중부 버지니아에 '작은 라싸'로 발돋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텐진 게펠 스님은 "우리(티베트 스님)는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명상 등의 신행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지역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힐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점점 더 많이 티베트 불교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사라질 위기에 처한 '태국불교 법당'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시의회 재개발 놓고 '고민'

스코틀랜드에서 태국불교 공동체의 첫 법당이었던 담마파디파(Dhammapadipa)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Edinburgh News> 지에 따르면 "에든버러 시의회는 담마파디파가 있는 스투트포드 거리에 대한 재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담마파디파는 지금까지 종교 용지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의회는 재개발 논의는 스투트포드 거리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터가 많아, 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시작되었다.

<Edinburgh News> 지는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종교 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온 담마파디파에 대한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이는 시의회 결정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스코틀랜드의 태국불교 공동체 첫 법당인 담마파디파(Dhammapadipa)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993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알렉산더 로우(Alexander Rowe) 씨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늦은 감이 있다"며 "시의회가 지역 발전에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데이비드 핀처(David Pincher) 씨는 "담마파디파를 중심으로 한 태국불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은 항상 활기에 차 있었다"며 "그 활기가 방치된 공터가 많아 자

칫 침체될 수도 있었던 이곳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대변인은 "시의회는 재개발에 앞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태국불교 공동체에서 담마파디파를 오랫동안 지켜온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모스크바 최초 불교사원 건립 '초 임기'

러시아 모스크바에 최초의 불교사원이 건립된다.

러시아의 소리(The Voice of Russia)에 따르면 3월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불교공동체(Moscow Buddhist Community)는 최근 "북동부 레닌그라드 주(州)에 위치한 오토라드노예(Otradnoye) 지역에 불교사원을 착공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불교사원 건립안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 초반, 유리 루슈코프 전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과 러시아 연방 남부 투바(Tuva) 자치공화국은 불교사원과 투바 전통문화양식을 담은 쇼펜스터를 세우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08년에 보류됐고, 모스크바 불교공동체가 최근 사업을 재개했다.

알렉산더 코이바 가로브 카르마 카규 학교 러시아불교연합회 회장은 "모스크바 불교공동체는 오토라드노예 불교사원 건립 프로젝트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다. 바로 기금마련이다. 우리가

들마 사그다로브 모스크바 불교공동체 회장을 만났을 때 그는 '착공하기 직전'이라고 확신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재 모스크바에는 24개의 불교종립학교가 있는데 모스크바 불교사원이 세워지면 이 가운데 한 학교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도가예브 드리콩 대승불교 종단 대변인은 "확실히 우리는 이 불교사원을 원한다. 사원은 종교 시설임과 동시에 다른 불교학교들간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내가 칼미크 공화국에 있을 때 사카무니 사원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학교들의 종파에 맞는 문화·종교적이고 명상과 교육을 지도받을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줬다"며 "이 같은 사원들이 모스크바에 생기면 종교를 넘어 널리 확산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불교사원은 부처님 사리탑 형식인 스투파(Stupa)양식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알렉산더 코이바 가로브는 "사원은 불자들의 명상 수행 장소로 쓰일 것이다. 이와 함께 부처님오신날과 열반절, 성도절 등 불교 명절의식도 이곳에서 거행할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불교사원이 건립될 전망이다. 사진은 러시아에 있는 불교사원.

우리가 불탑과 사원을 갖는다면 각자의 교리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공동축제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스크바 불자들은 불교사원을 포크로냐야 고라 전쟁기념관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념관에는 그리스정교회 사원과 교회 등 종교건물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교사원 건설은 애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러시아의 조화와 통합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계획됐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불교는 17세기 초반 불교국가인 칼미크 공화국인들이 러시아제국에 유입되면서 전파됐다. 이후 1741년 러시아 엘리자베스 황후가 러시아의 공식종교로 승인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방식 내부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불교인이면 누구나 기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ban

나만의 완성세계 기ban

기반의 완성세계 기ban

기반의 완성세계 기ban

기반의 완성세계 기ban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